

2013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예술가 및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프로젝트 선정공모 최종 합격자 발표

인천아트플랫폼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예술가 및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프로젝트 선정공모 관련 하여 최종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21.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 인천아트플랫폼-최종합격자

1. 시각예술부문

가. 입주기간 1년(2013/03~2014/02) : 14명

NO.	접수번호	성명	이메일
1	4201211040012	박혜민	h.flyingnet@*
2	4201211050018	정기훈	kihoongood@*
3	4201211080036	빈우혁	gesund@*
4	4201211080041	이주리	s_anysia@*
5	4201211090049	성낙희	nakheesung@*
6	4201211130079	김기라	salinza@*
7	4201211130108	노기훈	nokihun@*
8	4201211130109	최성록	rocverchoi@*
9	4201211140120	이수영	newbus11@*
10	4201211150198	리금홍	hejiuba3@*
11	4201211150223	옥인 콜렉티브	okinapt@*
12	4201211150231	차지량	cafmania@*
13	4201211150295	이해민선	minssay@*
14	4201211150336	함경아	roundladder@*

나. 입주기간 6개월 : 4명

NO.	입주기간	접수번호	성명	이메일
1	2013-03~2013-08	4201211150213	김주호	joocho7@*
2		4201211150250	정지현	photojh@*
3	2013-09~2014-02	4201211150276	김원화	mtotm12@*
4		4201211150315	김세진	zero733@*

다. 입주기간 3개월 : 9명

NO.	입주기간	접수번호	성명	이메일
1	2013-03/04/05	4201211100053	요르그 오베르그펠, 독일 (Jorg Obergfell, Germany)	joergobergfell@*
2		4201211150273	앵지 아트마드자자, 인도네시아 (Angie Atmadjaja, Indonesia)	a_atmadjaja@*
3	2013-06/07/08	4201211110058	리앗 리브니, 이스라엘 (Liat Livni, Israel)	livniliat@*
4		4201211140127	조지 카비에세스 발데스, 칠레 (Jorge Cabiese-Valdes, Chile)	jorgecabieses@*
5		4201211140152	줄리앙 쿠아네, 프랑스 (Julien Coignet, France)	julien.coignet@*
6	2013-09/10/11	4201211140123	실비아 빈클러, 오스트리아 (Sylvia Winkler, Austria), 슈테판 커페르, 독일 (Stephan Köperl, Germany)	sywin@*
7		4201211150202	올리비아 발렌타인, 미국 (Olivia Valentine, USA)	oliviavalentine@*
8		4201211150277	인스턴트 커피, 캐나다 (Instant Coffee, Canada)	jin@*
9	2013-12/2014-01/02	4201211150272	로라 테레사 아베 가셀라노, 필리핀 (Lara Teresa Abueg Garcellano, Philippines)	lgarcellano@*

2. 공연예술부문

NO.	입주기간	접수번호	성명	이메일
1	2013-03~2014-02	4201211150238	신재훈	zolzimahoon@*
2		4201211150270	신승렬	tltdnd98@*
3	2013-03~2013-08	4201211080040	전광표	kwangpyojeon@*
4	2013-09~2014-02	4201211150312	정진세	lilytulip@*
5	2013-03/04/05	4201211150204	파라스케바즈 레카키스, 그리스 (Paraskevas Legakis, Greece)	nefeliano@*

3. 문학·비평·연구 부문

NO	입주기간	접수번호	세부분야	성명	이메일
1	2013-03~2014-02	4201211080035	큐레이터	이대범	criticism74@*
2		4201211140122	비평 및 이론분야	김해진	hyejinwill@*
3		4201211150225	문학	임정자	mool44@*
4	2013-09/10/11	4201211150174	큐레이터	엘리사 토소니, 이탈리아 (Elisa Tosoni, Italy)	elisatosoni.curator@*
5	2013-06/07/08	4201211150190	큐레이터	첸두, 중국(xiyun du)	duxiyun1@*

□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프로젝트-최종합격자

	입주기간	접수번호	지원세부분야	성명	이메일
1	2013-03/04/05	4A201211150013	사운드아트, 조각, 설치, 기타	제시카 메튜너(Jessica Mautner), 루이 지기 오그라디(Louie Ziggy O'Grady)-영국 UK	louiejesse@*
2	2013-03/04/05	4A201211140004	패션, 디자인	엠마 벨, 영국(EMMA BELL, UK)	EMMA@*
3	2013-06/07/08	4A201211150005	설치	김수미, 한국(일본거주) (Kim soomi, S.Korea, Lives in Japan)	sumi51979@*
4	2013-09/10/11	4A201211120003	사진	이샤이 가르비즈, 영국(Yishay Garbasz, UK)	yishay@*

※ 선발 부문은 신청부문 및 인터뷰 심사부문과 일부 조정되어 발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작가 오리엔테이션(예정)

- 일 시 : 2013년 1월 15일(화) 14:00~
- 장 소 :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 선정된 입주예술가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입주계약서 작성, 입주관련 일정 및 안내, 스튜디오 배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참서류 : 주민등록초본, 계약서 작성을 위한 도장
- 문 의 처 :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담당자 032)760-1006 hmoh@ifac.or.kr

* 향후 일정은 이메일을 통해 공지됩니다.

□ 심사평

1. 시각예술부문 1차

1차 심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다양한 장르, 다양한 작품형식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회화는 물론 조각, 영상미디어, 설치까지 350여명(국내외 개인 및 팀)이 훨씬 넘는 출품 작가 수에 비례하는 것이었고, 이는 얼터모던이라 일컫는 동시대미술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발견토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회화 작가의 비중이 컸다는 사실은 여타 레지던시 공모 대비 눈에 띄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다. 일단 작가별 작품성의 간극이 비교적 넓고, 미학적 고찰이 수반되지 못한 상황에서 트렌드에 발맞춘 외피적 양식의 수용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예가 적잖이 발견되었다. 특히 몇몇 작가의 작품은 다분히 형식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거나 내용적으로 완성도가 나약한, 자신만의 색깔 형성을 위한 알고리즘을 읽기 힘들었다.

물론 독창성의 부재, 전위적인 태도의 비지향성, 고유한 언어에 대한 깊은 사색의 허약함은 비단 본 심사에서만 읽히는 사례는 아니다. 한국 동시대미술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슬픈 현주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에 대한 갈망과 미적 조타가 명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 뚜렷한 자기철학을 상기시키는 작품들과 (소수이긴 해도)조우할 수 있었음은 이번 선정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남다른 흥미로움이자 즐거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다소 고민해야 했던 것이 있다. 바로 일부 노마드식 레지던시 순례 작가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일정일단이 있다. 우선 각 레지던시마다 엄격한 심사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러 레지던시에서 작업했다는 사실은 작업성에 대한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가능성 또한 담보한다는 것이며, 그와 관련한 미술계의 기대 역시 작지 않음을 뜻한다.

반면 경력쌓기용이자,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텃밭으로 한 입지확대 수단으로서의 레지던시 입주라는 틀도 존재함을 부정하진 못한다. 레지던시 입주를 마치 하나의 작은 훈장처럼 여기는 미술계 현실이 상존함 역시 아니라 하기 힘들다. 이에 본 심사위원들은 이전 이력이 어찌되었든 관계없이 유효한 창작 비전 가능성에 관한 단발적이지 않은 환경 구축 지원이라는 거꾸집을 토대로 냉정하게 작품성으로만 평가했다. 오히려 창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음에도 과거 대비 변화 없이 지루한 작품양태를 엿보이는 경우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더불어 이번 최종 1차 심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나 아깝고 좋은 작품을 하는 작가들도 적지 않아 변별성을 부여하는데 있어 고심을 해야 했던 측면도 있었다. 때문에 심사위원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한정된 인원 탓에 1차 선정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향후 그들에게도 예술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경한

심사위원 에이포트 디렉터, 작가 이 탈
심사위원 월간아티클 편집장 홍경한
심사위원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고원석
심사위원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이수정
심사위원 인천아트플랫폼 학예팀장 한제섭
심사위원 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오혜미
심사위원 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사승현

1-1. 시각예술부문 2차, 3차

입주작가 국내부문 심사의 경우, 전반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아 심사를 하는데 고려를 많이 하였으며, 여러 가지 다양성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 하였다. 국외작가들의 경우, 다양한 국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작가들이 지원하였으며 특히 인천과 한국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작업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작가들이 많았다. 수준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장, 단기를 아울러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가 작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계획내용들 역시 예년에 비해 구체적이고 심화된 것들이 많았다. 해외작가들의 백령도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커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좋은 과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기획들을 뽑았다. 각 2배수 가까이 선정하였으며, 오는 18일에 3차 면접을 거쳐 선정작가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유진상

최종심사에서는 각각의 다양한 장르에서 매우 실험적인 작가들을 추천하는데 주력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의 다양성과 실험성을 담아내기 위하여 예술가들을 다양한 요소들과 엄격한 심사기준에 맞춰 선발하는 과정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다. 아트플랫폼에 지원한 작가들은 연령층 및 분야, 스타일이 매우 다양하였고, 작품의 수준 또한 매우 높아보였다. 이는 최근 수 년 내의 국내 환경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 미술시장의 성장과 함께 특히 각종 지원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설립이 창작을 독려하고 상호간 경쟁을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국내의 많은 레지던시 기관들이 지역과 소통하며 공공적 예술활동 및 예술담론을 만들어가는 양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인천아트플랫폼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예술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심사에서도 작업 수준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창작적 역량과 함께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참여적 공공예술을 실현할 수 있는 작가들을 중점 선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준 높은 국외 작가들의 지원은 인천아트플랫폼이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천 지역의 미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못지않게 인천지역 작가들의 관심과 애정은 인천아트플랫폼에게는 매우 중요한 성장 동력이기에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역시 아트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전개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아무쪼록 이번에 입주 작가로 선정된 작가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작가에게도 향후 보다 나은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 ■서진석

심사위원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이승미
심사위원	계원예술조형대학 교수	유진상
심사위원	스페이스빔 디렉터	민운기
심사위원	대안공간루프 디렉터	서진석

2. 공연예술부문

입주작가를 선발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다. 많은 예술가들이 인천아트플랫폼의 특성을 미리 리서치하고 공모의 취지를 뚜렷이 인식하여 그에 걸맞은 계획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작가들의 경우 대부분 단일 종목의 순수공연예술보다는 연극연출, 무대미술, 영상, 사운드 아트, 놀이문화 등의 혼합된 다원적, 복합적 공연예술을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작품계획들은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레지던시 기간동안 역동적이고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쳐나가 인천아트플랫폼의 공연예술 창작에너지 확산을 위한 바람을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앞으로 역량있는 국내외 예술가들의 참여가 확대돼 인천 문화의 다양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	LIG아트홀 예술감독	조성주
심사위원	2012변방연극제 총감독	임인자
심사위원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이승미
심사위원	인천아트플랫폼 프로듀서	심현주

3. 문학·비평·연구 부문

이번 인천아트플랫폼 문학, 비평, 연구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심사는 시각예술부문과 문학비평부문 양쪽 모두에서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 미술비평가의 많은 신청은 연구부문 레지던시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보여졌다. 이런 점에서 선발 또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국내외 큐레이터를 최대한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선발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연구부문 큐레이터의 입주는 인천아트플랫폼과 입주작가, 큐레이터 모두에게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학비평부문에서는 문화비평, 연극비평, 순수문학, 아동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지원하였다. 순수 문학작품활동을 하기 보다는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문학, 비평가들을 선발하는데 주목하였다. 또는 인천아트플랫폼과 담론을 함께할 수 있는 작가를 선발하는데 신경을 썼다. 선정된 작가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아울러 이번 입주 기간 동안 좋은 작품을 기획하고 창작하기를 바란다.

심사위원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이현식
심사위원	숭실대학교 교수	이경재



>> 시외버스 이용

인천행 시외버스 이용, 인천터미널 하차, 월미도 및 신포동 방향 시내버스 이용

>> 시내버스 이용

- 인천 중구청 정류장에서 하차 5번, 15번, 28번, 720번
- 인천역에서 하차 2번, 15번, 23번, 28번, 45번, 306번
- 신포시장에서 하차(중구청 방향으로 환승이용) 3-1A번, 4번, 6A번, 6-1A번, 6-1B번, 12번, 15번, 16번, 17-1번, 22번, 23번, 24번, 41번, 45번, 46번, 111번, 112번

>> 지하철 이용

1호선 인천역에서 하차 후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5분 거리

>> 자가용 이용

- 서울방향에서 올 때

제 1 경인고속도로 이용 : 인천항 - 월미도 방향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제 2 경인고속도로 이용 : 고속도로종점 - 월미도 방향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이용 : 수송도로 - 청라지구 - 현대제철 - 월미방향 - 인천역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 수원방향에서 올 때

영동고속도로 - 인천항 - 월미방향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 경기북부지역에서 올 때

동두천 - 의정부 - 송추 - 외곽순환도로 - 경인고속도로 - 인천항 - 월미방향 - 인천중부경찰서 맞은편

파주-자유로 - 일산 - 외곽순환도로 - 경인고속도로 - 인천항 - 월미방향 - 인천중부경찰서 맞은편

* 주차안내

인천아트플랫폼 단지 내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